

‘국제적 암특화병원’ 화순전남대병원 에세이 발간



‘일심리엔 살구꽃이 핀당개’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 지역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국제적인 암특화병원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담은 에세이집이 나왔다. 바로 ‘일심리엔 살구꽃이 핀당개’.

화순전남대병원은 무등산 국립공원 인근의 산기슭에 위치해 2004년 개원 후 ‘자연속의 첨단의료’를 표방하며, 국제적인 암특화병원으로 도약하고 있다.

이같은 화순전남대병원의 ‘역발상’과 성공에 힘입어 화순군은 이제 첨단의료도시, 바이오 밸리로 변모해나가고 있다. 국내 유일의 화순백신산업특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 국가적 신성장동력인 ‘백신 강국’을 향한 기대주로도 주목받고 있다.

‘한국 의료계의 성공신화’로 꼽히는 화순전남대병원이 대도시가 아닌 지방의 소도읍에서 글로벌 암특화병원으로 도약하기까지의 역경 극복과정을 담은 에세이집

을 최근 발간했다.

‘일심리엔 살구꽃이 핀당개’라는 제목의 이 책에는 280여 페이지에 걸쳐 의료진과 직원들의 인터뷰와 수기, 잘 알려지지 않은 일화들, 환자와 보호자들의 체험담 등이 골고루 수록돼 있다.

‘일심리’는 화순전남대병원의 소재지이고, ‘살구꽃’은 치료비를 받는 대신 살구나무를 심게 해 환자와 가난한 이들을 도운 중국의 ‘행림춘만’ 고사에서 유래된 의술과 인술을 의미한다.

전남대학교병원의 분원인 화순전남대병원은 1994년 광주 인근의 전원도시인 화순읍내의 무등산 국립공원 인근 산자락에 터를 잡았다. 2004년 개원에 이르기까지 “대도시가 아닌 시골까지 암환자들이 찾아오겠는가”, “병원이 문을 열더라도, 수년내 말할 가능성이 있다”는 안팎의 회의론과 1997년 IMF 위기 등으로 힘겨운 10년간의 산고를 겪었다.

이후 모두의 우려를 딛고, 국내는 물론 세계무대에서 주목받는 글로벌 병원으로 단기간에 발돋움하기까지의 과정이 흥미로운 일화들과 함께 펼쳐져 있다. 지역 소도읍에서 암특화병원을 만들기 위한 첨단의료장비와 협진체계 도입, 공원같은 병원 조성, 국제적 의료수준을 갖추기 위한 국제의료기관 인증 도전,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와 해외환자 유치, 화순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를 향한 행보 등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한 병원 구성원들의 고뇌와 열정이 생생히 담겨있다.



무등산 국립공원 인근 화순군 화순읍 일심리에 자리한 화순전남대병원 전경. /화순전남대병원 제공

소도읍서 글로벌병원 성공과정 의료진·환자 등 수기도 담아

수도권에서 치료를 포기한 암환자를 살려낸 의료진들의 집념, 어린 환자에게 골수 이식해준 간호사, 병동에서 열린 말기 암 환자의 결혼식, 백혈병 완치 이후 사회복지단체의 후원자가 된 청년 등 감동적인 사연들도 다양하게 실려 있다.

화순전남대병원은 전원도시라는 입지상의 불리함, 수도권이 아닌 ‘지방’이라는 편견과 제약, 국제적 네트워크가 쉽지 않

은 지역적 한계 등 악조건을 극복하고, 대도시와 차별화된 의료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병원으로 꼽힌다.

국내에서 유일한 원내 ‘치유의 숲’ 등 친환경 힐링 인프라, 병상당 암수술건수 국내 최다, 전국 국립대병원 최초의 국제의료기관 인증으로 공인된 세계적 수준의 의료질, 수도권 병원들보다 뛰어난 암환자 생존율 등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전남도가 최근 미래성장동력으로 ‘블루 바이오’를 육성코자 화순을 중심으로 국내 유일의 백신산업특구와 글로벌 면역치료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면서, 중추 역할을 맡을 기대주로도 떠오르고 있다. /정겨울기자

인물 이야기로 광주 역사문화를 읽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광주 역사문화자원 인물편’ 출간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 광주의 역사문화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광주 역사문화자원 인물편’을 출간했다.

광주지역의 유·무형의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조사 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온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은 200여명이 넘는 광주역사문화자원 인물 목록 가운데 전통시대와 근·현대시대 인물 가운데 45

명을 1차로 선정해 이번 책자를 제작한 것으로, 인물을 통해 광주의 역사와 문화, 광주정신에 한 발 다가서기 위한 여정을 담았다.

이 책은 광주지역의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시민들의 삶과 삶터에 새겨진 이야기의 광맥을 찾아가는 ‘광주역사문화자원 스토리텔



링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문화와 역사인물들의 숨은 가치를 발견하고 시민의 역사인식과 문화적 안목을 높이는 한편 창작의 원천소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로 광주시의 후원으로 제작됐다.

광주 지역의 역사문화와 함께한 인물의 이야기를 한 권에 담은 이 책은 ▲울곡이 지켜온 광주의 정신 ▲광주에 이야기를 남긴 사람들 ▲양림역사문화마을, 근대문

화 1번지 ▲불의에 항거한 광주와 5·18 ▲남도 문화의 뿌리, 광주 예술 ▲민주화의 길에 서서 등 6가지 주제별로 편제해 고려의 명장 정지 장군, 광주정신의 원류 놀재 박상에서부터 5월의 사제 조비오 신부와 6월 민주항쟁의 청년 이한열 열사까지 45명의 인물을 실고 있다.

또한 광주역사문화자원 스토리텔링 누리집을 개편해 검색기능을 강화하고, 사이버광주읍성 누리집을 통합, 카테고리를 신설해 광주의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집적도를 높여 통합적이고 확장된 누리집을 구축했다. /정겨울기자

‘트렌드 코리아’ 12주만에 1위 내줘

지난해 10월 발매되자마자 정상에 오른 김난도 서울대 교수의 ‘트렌드 코리아 2020’이 두 달가량 지킨 베스트셀러 1위 자리를 내줬다.

교보문고가 최근 발표한 1월 둘째 주 온·오프라인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에 따르면 유튜브 인기 크리에이터 혼한남매의 일상을 만화로 그린 ‘혼한남매 3’이 출간

과 동시에 1위로 진입했고 ‘트렌드 코리아 2020’은 1계단 하락했다.

이어 ‘1일 1페이지, 세상에서 가장 짧은 교양수업 365’가 3위에 올랐다.

혼한 남매는 요즘 출판계 강세 분야인 아동, 캐릭터 시리즈, 유튜브 콘텐츠 기반의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다.

13층씩 커지는 집 이야기를 다룬 그림



혼한남매 3



트렌드 코리아 2020



1일1페이지, 세상에서 가장...

책 시리즈의 최신판 ‘117층 나무집’은 처음 진입하면서 10위에 올랐다.

아동·유아 분야에서는 이밖에도 ‘설민석의 한국사 대모험 12’ (15위), ‘겨울왕국 2’ (22위), ‘GoGo 카카오프렌즈 11’ (50위)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데미안’ (9위), ‘코스모스’ (13위), ‘총·균·쇠’ (14위) 등 스테디셀러들도 강세를 보였다. 이들은 최근 TV프로그램에 소개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연합뉴스

새로 나온 책



▲인문학자가 보여주는 새 이야기, 인간 이야기 = 서정기 지음.

불문학 박사로 대학교수를 지낸 저자의 탐조기이자 새를 매개로 인생과 자연, 과학, 세계를 이야기하는 에세이다.

저자가 새를 사랑하게 된 것은 새들이 시간을 거슬러 자신을 어린 시절로 되돌려 보내 주기 때문이라고 한다. 공핍한 어린 시절에 본 물총새의 화려한 깃털은 그 시절의 유일한 호사였으며 몸 약한 아들을 위해 아버지가 어렵게 구해온 갈색 반점이 박힌 뜬부기 알은 아련한 추억으로 남았다.

운명처럼 새를 사랑하게 된 저자는 전국 곳곳을 다니며 새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는 것을 취미로 삼게 됐고 탐조 활동은 어느덧 국경을 넘어 중국,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프랑스, 가나, 코스타리카 등 세계 곳곳으로 확대됐다. /지식의날개·1만6천원.



▲우리는 피임을 모른다 = 김선형 지음.

피임이 여성의 권리로 인식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고대부터 존재한 갖가지 피임 방법, 낙태와 인공유산에 대한 법적·철학적·사회적 검토를 담았다.

임신을 제한하고 회피하는 노력은 인류의 시작과 함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대 헤브라이인들은 풀뿌리와 나무껍질을 달여 탕약을 만들어 먹었고 고대 그리스에서는 수양버들 잎을 끓인 물과 금속을 달인 물을 마셨으며 고대 이집트인들은 악어 똥을 질 삽입제로 사용했다.

9세기 이슬람권에서는 배추와 코끼리 똥 등 피임 목적의 질 내 삽입제로 사용한 물질이 17가지나 됐다. 그러나 이 같은 전근대적 피임 도구들은 원하는 효과를 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여성의 몸을 망쳤다. /파람·1만5천원.



▲최종태, 그리며 살았다 = 최종태 지음.

지난해 미수 (88세)를 맞은 원로 조각가가 최근 십수 년간 쓴 글을 엮었다.

처음 그림을 배우기 시작한 중학생 시절부터 오늘날까지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어떤 마음으로 살며 그렸는지, 누구에게 배웠으며, 무엇을 바랐고, 극복하려 한 것은 무엇이었는지를 솔직하게 풀어놓는다.

철모르던 유년기의 기억과 법정 스님, 김수환 추기경, 이동훈, 김종영, 장욱진 등 그가 사사하고 교유한 이들과의 추억을 떠올린다. 또 피카소와 자코메티, 이중노와 윤형근, 샤갈과 헨리 무어에 이르기까지 거장들의 작품에 대한 생각과 함께 오늘의 미술에 대한 견해와 자신의 예술관을 피력한다. /김영사·1만5천800원.



▲우리 시대의 작가 = 조슈아 스펠링 지음. 장호연 옮김.

영국 출신 예술비평가 존 버거 (1926-2017) 평전. 저자는 미국 예일대에서 비교문학, 영화·미디어 이론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대에 처음 버거를 접했다는 저자는 버거가 남긴 에세이를 통해 지적인 노동과 가까이 경원하려는 자세 혹은 대지에 뿌리박고 살아가려는 자세 사이에 어떤 모순도 없이 글을 쓰고 사유하는 방식을 알게 됐다고 회고한다.

그는 버거 저작과 미공개 아카이브를 바탕으로 인물의 삶을 복원해 나간다.

영국에서 저널리스트이자 문화적 투사로 이름을 날린 시기부터 프랑스에서 눈을 감을 때까지 생애를 정리했다. /창비·2만원.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http://www.kukje9.co.kr

“맛과 멋을 새롭게”

출장뷔페 전문외식산업

▶ 자매회사: 제사나라 062)527-0044/011-602-2278

- ▶ 야외 결혼식
- ▶ 칠순잔치
- ▶ 체육대회
- ▶ 야유회

국제외식산업(주) 문의.062)262-2278/011-602-2278